

설교후기도 설 교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의 큰 명절 설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복에 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은혜요 복임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나누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찬송 429장 다 같 이

- 1)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 2) 내 영혼에 노래있으니 주 찬양 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 3)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 4)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 (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취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 교제 (새해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신년감사예배는 낡은 해를 과거로 돌리고 새해를 여는 뜻깊은 예배입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신년에 낡은 시간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년예배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해,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 지침

- 1)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둘러 앉습니다.
- 2) 가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 3) 가족 가운데 어른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되, 서로 순서를 나누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2020년 설 가정예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11:12)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상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 552장 다 같 이

-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 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때 햇빛 되게 하소서
-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3)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 도 가 족 대 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생사고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6장 11-15절 말 은 이

-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 14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 15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설 교 말 씀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말 은 이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보다 더 큰 이는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복에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복에 미래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복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젊어서 받는 복에 노년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복에 돈을 선하게 잘 쓰는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면서 그 건강으로 더 귀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히 13:8).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은혜도 축복도 받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복 위에 복을, 번성 위에 번성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믿음이 좋아야 생각도 좋고, 행동도 좋고, 말도 좋고, 생활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참고 기다리고 믿읍시다.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안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정확성, 확실성을 믿고 의지합시다.

윈스턴 처칠은 “위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커다란 것이든 시시한 것이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일이 궁지에 몰리고 만사가 어긋난 것 같아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고, 때가 되면 길은 보이게 됩니다. 높은 산은 쉽게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음으로 복을 받고 번성케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